

## 노사관계 동향

### 노사분규 동향

- ◆ 근로손실일수 감소 및 분규참가자수 증가
- 2005년 1월 16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임(표 1 참조).
  -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7건이고 분규참가자수는 712명으로 전년동기의 105명에 비해 늘어났지만 근로손실일수는 9,988일로 전년동기 11,884일에 비해 감소

〈표 1〉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

(단위: 개소, 명, 천일)

	2003. 1. 16	2004. 1. 16	2005. 1. 16
노사분규발생건수(개소)	6	2	7
분 규 참 가 자 수(명)	592	105	712
근 로 손 실 일 수(천일)	11,514	11,884	9,988

주: 당해년도의 누적치이며, 분규발생건수는 사업장 기준임.  
자료: 노동부.

### 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

- ◆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관련 노사단체 엇갈린 반응
- 노동계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실망감을

표명

- 한국노총은 “대통령이 밝힌 경제활성화 방안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공허하고 비정규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”며 아쉬움을 표명
  - 민주노총 역시 “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정책적 비전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은 기업 측에 있음에도 이 문제를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 것은 비정규직을 모독한 것”이라며 강한 실망감을 표명
- 경총은 경제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표명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힘.
-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힘쓰겠다는 대통령의 지적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며, 정규직-비정규직간 문제 해결을 위해 직업훈련의 강화와 대기업 노조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공감을 표명
  - 아울러 앞으로 경영계는 투명경영과 투자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노동계는 생산성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을 주장

주요노동일지

(2004. 12. 1~2004. 12. 15)

년·월·일	노동정책	노사단체	기업 및 노동조합
2004. 12. 16			· 철도노조: 특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가결
12. 17		· 경총: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성명 발표	· 현대자동차노조: 협력업체 불법파견 관련 기자회견 개최
12. 20	· (사)한국노동복지센터: 제1회 노동복지 심포지움 개최		
12. 21		· 민주노총: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	
12. 22			· 씨티은행노사: 노조의 전면파업 중('04. 10. 5~) 단체협약 합의, 업무복귀 · 경인방송이사회: 방송위원회의 방송재허가 추천거부에 따라 폐업 의결
12. 25			· 하이닉스-매그나칩 사내하청 3개사: 사내하청 노조의 전면파업 중('04. 12. 21~) 직장폐쇄
12. 27			· 한진중공업(주) 마산공장: 축탁계약 해지 비관, 축탁근로자 자살
12. 30		· 민주노총: 한진중공업 축탁근로자 자살사건 관련 기자회견 개최	
2005. 1. 3			· 우리증권노조: 전면파업 중('04. 12. 6~)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가결
1. 4		· 금속연맹: 중앙위원회 개최, 재선거 일정 등 확정	
1. 7		· 민주노총: '05년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	
1. 10		· 한국노총: 산별대표자회의 개최	
1. 11		· 대구시 노사정협의회: 경제살리기 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	· 부산지하철노조: 구조조정저지 결의대회 개최
1. 14		· 민주노총: 하이닉스 하청업체 불법파견 관련 성명서 발표 · 민주노총: 05년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개최	